

인간, 자연 너머의 지리학 토론문

인문지리학 박사과정

강석영

제12장 인간 너머의 지리학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앞서 모더니즘을 탈피하는 포스트모더니즘처럼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관점을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 비인간의 경계까지 재고하며 인간 너머의 행위 주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인간 너머의 세 가지 구체적 접근을 제시하며 살펴보고 있다. 동물지리학,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혼종적 지리학을 들었다.

발제자는 여기서 한국의 동물지리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직 한국의 인문지리학에서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동물을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공동 세계의 주체로 재사유하려는 이론적·윤리적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논문을 통해 학계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토론 거리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차이, 문화적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태학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가장 발전적이고 고등생물이라는 서구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동양에서 동물과 인간은 차이가 있는 다른 존재이지만 가축 또는 들짐승 등으로 분류되어 같이 공존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함께가 아니라 동양에서 동물은 하나의 생명이자 더불어 사는 존재여서 객관적인 대상화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교적 2010년 이후에 ‘애완’에서 ‘반려’로 인식이 전환이되고 서구의 방식처럼 동물인증 또는 등록제가 시행된 점을 들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결국 생명 존중과 동물과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前)인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상화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지리학에서 자연공간에 대한 정의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공간과 대상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립공원, 온실 농업, GMO 등은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설정 또는 생성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 지속가능성은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활용되게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체제의 존속이나 인간 존재의 이어짐인지 이 세계와 환경에 대한 것인지 나아가서 이 우주와 은하계인지에 대하여까지도 폭넓게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여겨진다. 이상기온 등의 기후 위기를 비롯하여 자연 공간에 대한 인식의 초점을 맞출 때 결국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세 번째는 인간 너머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민하는 것은 공간 과학으로서의 계측 가능한 범주의 약화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공간과학의 등장과 지금까지의 여러한 학문적 동향을 살펴 보았을 때 측량적인 공간 과학적 지리학과 인간 너머의 감응성, 물질성 등은 별개로 선택되어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13장 자연 너머의 지리학

발제자는 자연 너머의 지리학의 주요한 개념들 중 인류/인류세를 중심으로 지리학 담론과 이 세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우선 인간과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무대이자 공간인 지구라는 배경을 중심으로 '인류'와 주변부로서의 아시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명체는 다름아닌 인간이다. 이 인간에 의해 현재의 상태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립 또는 재위상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 너머를 보기 위해 인류를 살필 때 환경적인 부분이나 서구 중심적인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다. 이는 앞서서 제기된 스케일에 관한 논의나 주요한 이론들이 전개되고 발전되었을 때 대부분 서구의 시각과 공간, 경험에서 논의가 시작되거나 마무리하고는 한다.

그러한 지점에서 포스트오리엔탈리즘 또는 포스트옥시덴탈리즘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통된 자연에 대해 인간(조금 더 자세히 구분하자면 인류)이 다시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있어 그 인간의 대상이 '자연'처럼 '인간'도 공통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은 서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한 스케일은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비기독교적인 대상 등이 아닌 서구가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있어 불평등을 정리하고 주체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구 / 동양, 서구 / 비서구의 구분의 통합이나 평등함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러 위상의 인정과 공통의 역할과 목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공통된 인류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연 너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